

용역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며



김종수 감사
(주)CS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얼마전 건설협회의 前회장이었던 장영수 회장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공사의 병폐를 지적하며 “제 값 받고 일하기”운동을 제창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995년 삼풍사고 이후 구조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우리 업계의 노력으로 한 때 합리적인 설계비를 받았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한번 내려간 구조설계비는 악화일로로 상태에 있다. 이제는 구조설계 업계에서도 합리적인 구조설계 용역비를 제시하고 구조설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믿는다.

그러면 합리적인 구조설계 대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보자.

건축설계 대가는 건축사협회안에 따르면 전체 공사비의 3~9%의 범위에 있다. 즉, 공사비와 설계비를 연동시키는 개념이다. 설계도가 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라고 한다면 복잡하거나 대형의 공사일수록 계획을 많이 하여야 하므로 공사와 설계를 비용면에서 연동시키는 개념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건축구조부문(골조공사)이 전체 건축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비의 산정이 공사비와 연동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에 의한다면, 구조설계 대가는 건축설계대가의 20%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총괄 건축설계가 인허가업무, 각 분야의 Coordination 업무를 고려하여 5~8%를 건축설계 쪽에 인정해주어, 구조설계대가는 전체 건축설계대가 12~16%인 것이 국제적인 통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개 평당 구조계산비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설계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검토비를 합하여 3~5%수준이며, 구조도면이 포함될 경우 6~9%정도이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구조도면이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만을 놓고 비교하더

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설계대가는 외국 구조회사가 건축설계사로부터 받는 비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축구조기술자들이 자신의 역할보다 매우 적음(절반에 불과한) 대가를 받아왔다는 것은 분배의 형평성 이외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 유능한 엔지니어를 충원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개발의 여력이 없는 결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형 건물에 대하여 외국의 구조설계회사가 시장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 10개의 상당수에 대하여 외국의 구조설계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구조설계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실적이 중시되는 건설시장의 특성상 다시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국내의 대형 건설현장을 외국 용역업체의 시장으로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가 수주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구조설계업계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책은 간단하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구조도면을 포함한 구조설계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구조도면이 건축설계쪽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설계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한 만큼의 용역비를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무(구조설계)를 다 했으면 권리(대가)는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평당 대가 기준이 아닌 전체 건축설계대가의 12~16%를 구조설계 대가의 기준으로 하여 구조설계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설계대가기준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구조기술사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용역 환경의 변화를 기대해 보직도 하지 않은가. **KSEA**